

이대·서강대·한양대 ‘서류 100%’… 연대 수능최저 폐지

대학가 소식



서울대 오세정 총장(왼쪽)이 지난 10일 동문 가족으로서 오랜 기간 약 3억원을 기부해 온 이형도 전 삼성전기 부회장 내외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서울대 이형도 前 삼성전기 부회장 박효순 동문 부부에 감사패

서울대학교는 지난 10일 관악캠퍼스에서 동문 가족으로서 오랜 기간 약 3억원을 기부해 온 이형도 전 삼성전기 부회장과 부인 박효순 동문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세정 총장은 “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동문님 부부의 사랑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형도·박효순 가족기금은 서울대 교육과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인재양성과 진리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이행하는데 소중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광운대 내일 ‘동북미래포럼’ 개최

광운대학교는 13일 오전 10시 교내 8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동북권 지역 발전 이슈와 대응방안 모색: GTX-C노선 확정과 광운대역세권 대응전략’을 주제로 동북미래포럼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북미래포럼은 서울 동북권 지역 발전을 위해 자치구와 대학, 학술단체,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여 지역 발전의 미래와 청사진 제시를 취지로 작년 11월 창립했다.



상명대 감성콘텐츠기술연구소가 황민철 교수의 연구과제 수행 실적을 인정받아 대학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연구공간을 제공받게 됐다. /상명대

상명대 감성콘텐츠기술연구소 ‘영구 과제연구실’로 지정

상명대학교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캠퍼스 미래백년관 3층에서 감성콘텐츠기술연구소(소장 황민철)를 영구 과제연구실로 선정해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명대는 연구개발(R&D) 우수 수행자의 연구실을 영구 과제연구실로 지정해, 연구자가 정년퇴직 시 까지 연구공간을 제공한다. 황 소장은 연구책임자로서 지금까지 과제수행을 통해 누적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을 수주했다. /한용수 기자

2020학년도 서울지역 대입 학생

숙명여대·중앙대도 올해부터 도입 면접 감소… 대입간소화 정책 기인

서울지역 대학들의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서류평가 100% 전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와 숙명여대가 올해 수시모집 학종 전형에서 서류평가 100% 전형을 첫 도입했고,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학종 모집 인원 전원을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한다.

11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대학가에 따르면, 2020학년도 서울지역 대학 중 수시모집 학종에서 서류 100%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 한양대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는 학종 모든 선발인원을 면접을 치르지 않는 서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학마다 전형방식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대학별 전형계획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학종 서류평가 100% 전형의 대표적인 대학은 한양대다. 한양대는 올해 학



지난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현대백화점 킷엑스점 문화홀에서 초·중등 학부모 대상으로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의치한수의예, 약대 진학을 위한 ‘종로학원하늘교육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생부종합(일반)으로 뽑는 963명 전원을 면접전형이 없는 학생부종합평가로 뽑는다. 한양대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수능최저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서강대(종합형, 학업형, SW우수자)와 이화여대(미래인재전형)도 학종 전원을 서류 100%로 뽑지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받는다. 서강대는 수능최저가 없지만, 이화여대는 수능최저를 본다.

올해 학종 서류 100% 전형을 새로 도입한 학교는 중앙대와 숙명여대다. 중

양대는 올해 다빈치형인재(589명), 탐구형인재(530명), SW인재(75명) 등 학종 선발인원 전원을 서류 100%로 뽑는다. 수능최저는 적용하지 않지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받는다.

숙명여대도 420명을 뽑는 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을 올해 신설하고, 한양대처럼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받지 않고 수능최저도 없었다. 다만 숙명여대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은 1단계 서류로 2~4배수를 가린 뒤, 2단계에서 면접 20%를 적용한다.

샐러리맨 솔져의 시대… 우수 軍 간부 양성 고민해야



문명철 국방기자 칼럼

최근 만나본 군 간부들은 부하를 통솔하고 지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군 간부의 전문성과 인성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인구감소, 병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우수한 간부의 선발과 양성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인관하더라도 군간부의 권위는 예전 같지도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상관 모욕 등 상관에 대한 죄로 입건된 경우는 2013

년 53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육군의 한 지휘관은 “고학력의 신세대 부하들을 지휘하는 것은 상관을 모시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다”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군을 기피할 이유는 늘고 있다”고 푸념했다.

육군의 한 위관 장교는 “다들 장기복무를 꿈꾸고 군 간부를 지원한다. 벤츠의 엔진이 되길 희망하지만, 다수는 수년 간 쓰고 교체되는 엔진오일 신세”라면서 샐러리맨 군대라는 자조적인 말을 꺼냈다.

군 인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급간부의 선발과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직능의 한 예비역 장교는 “인

구감축 등으로 2025년 이후 장교의 경우 정원 총원, 부사관의 경우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단적인 예로 서울 소재 대학의 학군단의 경우 예비사관 후보생을 먼저 모집할 정도로 지원율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짧아진 병 복무기간에 비해 장교의 단기복무가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면서 “과거 병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던 시절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는 36개월(훈련기간 제외)을 복무했기에 우수한 단기복무장교를 장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전직 군사학과 교수는 “정부와 대학이 시장논리로 군사학과를 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은 학종에서 면접을 치러, 30~60% 씩 반영한다. 서울대는 일반전형(인문, 자연)에서 연세대는 학종 전체 전형에서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지만, 고려대는 일반전형, 학교추천II 전형 모두 수능최저가 있다. 고려대 일반전형과 연세대 면접전형은 추천서를 받지 않고 나머지 전형 모두 자소서·추천서를 평가한다.

대학들이 학종에서 면접전형을 없애는 이유는 정부의 대입 간소화정책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라 수능 선발비율을 30%, 학생부교과전형 선발비율을 30% 이상으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2022학년도엔 학종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아예 금지된다. 일부 대학들은 이에 앞서 올해와 내년 입시에서 수능최저 완화와 자소서·추천서를 폐지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유성룡 교육연구소장은 “서류100%는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본다든 얘기고, 면접전형을 없앤것은 전형 간소화의 일환”이라며 “대학들이 서류전형을 통해 전공적합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비중은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003년 4년제대학에서 1개 학과로 시작된 군사학과가 현재 4년제 대학에서 40여개, 전문대학에서는 70여개 이상 개설돼 있어 군사학과의 부실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4년제 군사학과와 부사관 학과의 학생들이 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거나 학교가 이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학과 학생이라고 100% 입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학생총원율이 나쁜 대학의 정부제정지원이 어려워지고 이는 남아있는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부가 직접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군간부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생각해 온 것도 문제다. 결국 ‘샐러리 솔져’, ‘아르바이트 솔져(군장학금 수령에 따른 제한적 복무연장)’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captain@

‘워라벨은 꿈’ 직장인 64% “주말 근무”

절반 이상은 수당없이 무급

주52시간근무제와 탄력근무제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여전히 주말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과반수는 주말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직장은 737명을 대상으로 주말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내 주말 근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 63.5%로 10명 중 6명을 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2.5회 주말 근무

를 하고 있었다. 또, 주말 근무 시에는 하루 평균 7.2 시간을 근무한다고 답해 평일 근무시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근무를 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업무가 많아 평일에 못 끝내서(3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휴일이 따로 정해진 직무가 아니어서(32.7%) ▲상사, 회사 문화 등이 주말 근무에 익숙해서(19.9%) ▲행사 운영 등 주말에 할 일이 많아서(17.1%)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주말 근무에 대한 보상이 있는 직장인은 45.1%에 그쳐 절반 이상의 직장인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초등학생 AI 스피커로 영어 배운다

서울시교육청 하반기부터 시범도입

올해 하반기 서울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학교 영어교육이 시범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학교 영어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영어학습플랫폼 구축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활용 학교 영어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

으로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기반 영어 학습플랫폼을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후 2020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반 영어학습플랫폼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학생 개인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사는 학습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영어 말하기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영어학습플랫폼이 도입되면 학생은 집과 학교에서 인공지능스피커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고 학습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